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2주일
2021. 08. 29. (나해) 제2283호

제22주보



각산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신명 4,1-2,6-8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2독서** 야고 1,17-18,21-22,2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7,1-8,14-15,21-23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율법의 참된 정신



대안본당 주임 | 임종필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행위를 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고, 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토록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율법은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들이 대표적이고, 생활관습이나 도덕규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하느님과 동일시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연구하며 올바른 해석을 내려야 하는 부류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랍비(선생)들이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 가장 충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므로서만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나아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미워하지 않고 잘 보살펴 주시리라는 그릇된 믿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 준수에 강조는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백성들에 대한 통치 권력을 확실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많은 율법의 시행 세칙을 만들어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이 담긴 율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과 준수만 강조되다 보니, 율법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옥아매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근본정신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시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자주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들의 정한 기준, 즉 율법에 맞는지 아닌지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숨은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이 자기 편, 자기 친구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지켜야 할 것에만 매이게 되면, 더 이상 하느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이 되고 맙니다. 모든 율법이나 계명은 짐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복을 빌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쁘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골로**

“제가 받았으니, 그만큼 나눠야지요.”



김천황금본당 | 이진동 마태오

2019년 겨울 어느 날, 전기누전으로 시작된 불은 집을 새까맣게 태워 버렸습니다. 잠시 외출을 나갔다가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혈레벌떡 뛰어갔지만, 옷가지 하나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잣더미로 변한 집을 바라보며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지만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내,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김천황금본당 사회복지위원회에 무작정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결음에 달려오신 본당사회복지위원님들은 내 일 같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다시 삶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김천동그라미회(집수리봉사단)에서 자재비만 받고 집을 재건축해 주기로 하시고, 5대리구 사회복지회에서 월간 ‘빛’잡지를 통해 모금을 하였으며, 김천시청과 면사무소에서는 긴급지원으로 임시거처와 복구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성당의 교우들은 중고가전 수집과 폐기물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재입주를 하게 된 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재건축 자재비와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새 가전제품과 가구를 살까 고민도 했지만 교우들이 가져다주신 중고가전도 충분히 쓸 만했고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진 않지만 이 돈으로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나누는 것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기적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궂물**

※ 이진동씨가 후원한 금액은 김천시에 계시는 장애인, 다문화 아동, 김천황금본당 사회복지 활성화에 두루 사용되었습니다.

❖ 교황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문화도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최근 이탈리아 일간지 「일 세콜로 XIX」에 실린 이탈리아의 저술가 마우리치오 마지아니의 공개 서한에 담긴 물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답했다. 마지아니는 공개 서한에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저술가들의 저서를 출판 유통하는데 있어 업체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착취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웠다.”라고 말했다. 교황이 소설가 마지아니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답신은 8월 12일자 「일 세콜로 XIX」, 「라 스타파」를 비롯해 다른 신문들에도 실렸다. 교황은 “죽음의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이익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황 “젊은이들과 함께 형제애적 세상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2일 유엔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이웃의 요청,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12일 바티칸 뉴스



❖ 성모 승천 대축일 “겸손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삼종기도 훈화에서, 작음과 섬김의 길을 통해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는 여정에 성모님께서 우리를 동행해주시길 기도하자고 초대했다. 교황은 하느님께서 우리 역시 영광의 운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가장 겸손하고 가장 높으신” 성모님이 일깨우신다고 설명했다.

❖ 교황, 강진으로 큰 피해 입은 아이티와 연대

성 베드로 광장에 성모송이 울려 퍼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모 승천 대축일 삼종기도의 말미에서 지난 8월 14일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과 부상당한 많은 이들을 위해 성모님께 기도하자고 초대하며 함께 성모송을 바쳤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호소했다.

❖ 교황, 아프간 위해 기도 “대화 테이블에서 해결책을 찾읍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삼종기도를 마친 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우려하며 무기의 광음이 그치길 호소했다. 카불의 스칼레제 신부와 가톨릭 공동체는 교황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스칼레제 신부는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1년 8월 15일 바티칸 뉴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충청도 홍주 출신인 한덕운(韓德運) 토마스는 1790년 10월에 윤지충 바오로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바로 그 이듬해 윤지충은 신해박해로 체포되어 전주에서 순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해 나갔다. 그 후 토마스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그는 성사의 은총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주신부를 만나려고 하였지만, 끝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1800년 10월, 토마스는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고향을 떠나 경기도 광주 땅에 속한 의일리(현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기도와 독서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만 열중하였다. 그는 신자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이럴 때면 그의 말은 언제나 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굳건하고 날카로웠다고 한다. 다음해 초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한덕운 토마스는 옹기 장사꾼으로 변장을 한 뒤 한양으로 올라가 보기로 작정하였다. 교회와 교우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 청파동에 이르렀을 때, 토마스는 거적으로 덮여 있는 흉악민 루가의 시신을 보게 되었다. 이때 그는 놀라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 시신에 애도를 표하였다. 그런 다음 그의 아들 홍재영 프로타시오를 보고는 부친을 따라 함께 순교하지 못한 것을 엄하게 질책하였다. 홍재영은 그 후 다시 신앙을 되찾아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다가 1839년에 순교하였다. 또 토마스는 서소문 밖에서 최필재 베드로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 주기도 하였다.

사실 박해 상황에서 신자들의 시신을 돌보아 준다는 것은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한덕운 토마스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갔고, 여러 차례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밀고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옮겨져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토마스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한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는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믿으면서 이를 가장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비록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어찌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한덕운 토마스
(1752~ 1802년)



2021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공동의 집에서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의 2021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②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멍에'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결합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복음서들은 ... 예수님의 모범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의 의미를 하느님의 본디 계획을 되살리시는 계시의 충만함으로 선포하셨습니다.(마태 19,3 참조) 가정과 혼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되었고(에페 5,21-32 참조), 모든 참된 사랑이 흘러나오는 신비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모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창조로 시작되었고 구원 역사 안에서 계시된 혼인 계약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그 의미가 온전하게 계시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혼인과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친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사랑의 기쁨』, 62,63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냉장고 사용공간 60%로 유지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33호 정답

1. 사촌(* 이후, 양녀로 삼음), 임금의 내시가 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청하지 아니 함
2. 영광, 하느님, 주님, 아무, 절, 교만 3. 푸림절 4.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



미사 안내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4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9.5(일) 0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대상: 만 19세~35세 청년

문의: 제임스 수사, (010)3705-8184

대구 예수마음기도 피정(5주 과정)

기간: 9.27~10.25 매주 월 10:00~16:00

10.2~10.30 매주 토 10:00~16:00

장소: 지산성당 교육관

대상: 하느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010)9620-5603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ME 382차 비대면 주말

382차: 10.1(금)~3(일)

장소: 부부 각 가정 / 문의: 983-0521

코로나 걱정없이 가정에서 하는 ME주말

코로나 어둠 속 사랑과

희망의 등불을 다시 한번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일시: 10.13~11.17 매주 수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

랑의 힘,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등

수강료: 8만원 / 문의: 283-9898

SPC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일시: 9.10(금) 10:00~12:00

교육기간: 주 1회 총 8주 16시간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내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내적여정

신청: 254-2664 / (010)3228-3330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다시 읽는 구약성경(탈출기, 신명기)

수 14:30~16:30(9.1 개강)

심화반(시편과 묵상):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750-6573

부산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기간: 9.10(금)~14(화)

내용: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권혁민(투카), (051)510-0705

가톨릭상지대 2022년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기간: 9.10(금)~10.4(월) 수시 1차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2년도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상담심리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기간: 9.10(금)~14(화)

내용: 간호학과/사회복지/상담심리

문의: (043)270-0100~0102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기간: 9.13(월)~30(목)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주최: 사랑의씨튼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문의: (061)432-9241

제1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실천운동 교구 이벤트 참여 방법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는 실천운동 몇 가지를 마련하여 기념품 증정 및 감상문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 내용 더 알아보기

제출: 8.18(수) ~ 9.15(수)까지 ※ **발표:** 9.17(금) 카카오톡 채널 게시판 발표 및 개별연락

방법: 실천 운동기간(7.25 ~ 8.31) 동안 실천운동 7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분이랑만 참여가능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cmxk) • 이메일(dgfamily@dgca.or.kr)로 제출 ※ 감상문은 우편제출 가능

시상: 감상문 중에서만 선정하여 시상 예정 / 인증사진 및 영상부문에서는 기념품 증정 예정

문의: 053)250-3077 · 3114



가톨릭여성교육관 설립40주년 기념 - 미혼모 돕기 전시회

• 가톨릭미술가회 소품展 •

일시: 9.11(토) ~ 10.1(금)

장소: 갤러리1981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1층)



그림 : 김도율 요셉 신부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신상도(프란치스코) 신부
1968년 8월 29일
- 최영수(요한) 대주교
2009년 8월 31일
- 김문옥(요셉) 신부
1941년 9월 1일
- 이명우(야고보) 몬시뇰
1984년 9월 1일
- 박상태(루도비코) 신부
2004년 9월 3일
- 김규태(디오테오) 신부
2004년 9월 3일
- 장태식(리노) 신부
2012년 9월 3일

행사 | 모임

9월 가정특강 온라인 강의 배부

일시: 9.10(금) 10:00

주제: 소통으로 가꾸는 부부의 사랑
시청방법: 카카오톡 채널 검색_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경축_대구가톨릭평화방송 개국25주년

가스통신부의 보든개살 유튜브 특집
_25살, 이제는 찾아갑니다

: 8.18~9.8(매주 수) 16:05~16:50

그대에게평화를: 9.9(목) 14:00~15:00
주님안에서기뻐하야라: 9.9(목) 16:05

교육 | 모집

파스카 청년성서 팀공부 모집

성경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내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대상: 청년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황금 성경대학 모집

기간: 9.7(화)~11.30(화)
주간반: 10:00 / 야간반: 19:30
주제: 요한복음
강사: 윤일마 수녀(성바로로팔수도회)
문의: 황금성당, 762-1700

2022학년도 대구가톨릭대 수시 모집

미래 100년 새로운 창학
모집인원: 3,045명(수시 2,796명)
유스티노자유대학 신설(전면 온라인강의)
3년 만에 졸업 및 전문자격증 취득
입학상담: 850-2580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교양)
취미·교양 / 자격증 / 음악원(1:1레슨)
마감: 8월 말까지(선착순)
문의: 660-5554~6
<https://conedu.cu.ac.kr>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성경 읽는 재미, 종교철학산책, 교
회음악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성경과 신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개강: 8.31(화) / 문의: 660-5105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피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9.11(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수녀,
(010)8682-4237

주일 성령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시: 9.12(일), 9.19(일), 9.26(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문의: (010)9045-0191

채용 | 안내

성요셉재활원 직원 채용

업무: 생활재활교사(장애인 일상 케어)
대상: 57세 미만 남·여(자격사항 없음)
위치: 동고령IC입구(논공위천삼거리 5분)
문의: (054)954-4176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09:00~17:30)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자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관절경시
·고양이특화
·아간증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380-5 (아파트 뒷길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투구) 053-571-0075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페이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힐스피부과
새소·어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 상 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연덕역(성모당) 9분 출구
척탑병원 3층

**일월매트총판 | 대형선풍기
이동식이어전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판 1층 239호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임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대구 아영로 46 [산림동 214-4] 2층 Tel 053-954-7582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증명서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현씨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